

# 우리 소설장르의 새로운 영토개척

## 최명희의 대하소설 「魂불」

김선학

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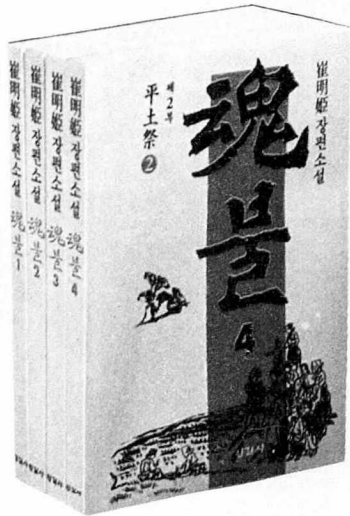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표현된 것이 말이요, 말의 가락이 있는 것이 詩歌文賦이다. 사방의 말이 비록 같지는 않더라도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그 말에 따라서 가락을 맞춘다면, 다같이 천지를 감동시키고 귀신을 통할 수 있는 것은 유독 중국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詩文은 자기말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표현한 것이니, 설사 아주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다. 여염집 골목길에서 나뭇꾼이나 물길는 아낙네들이 이야기하며 주고받는 노래가 비록 저속하다 하여도 그 眞假를 따진다면, 정녕 學士大夫들의 이른바 詩賦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입장에서 논할 수는 없다.”

西浦 김만중의 말을 인용했다. 西浦는 松江의 「閑東別曲」과 「思美人曲」 「續美人曲」의 歌辭를 屈原의 楚辭에 비견하는 글에서 詩文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풍속을 그려낼 때 참다운 가치를 지닌다고 말하고 있다. 최명희의 장편소설 「魂불」 1·2부 전 4권을 읽고 난 후 문득 생각나는 것이 서포 김만중의 앞서 인용한 말이다.

소설이라는 장르는 분명 서구로부터 수용된 문학의 갈래다. 중국문화권에 속해 있던 우리에게 ‘소설은 패관잡류로서 시경의 황실수설을 집대성한 것’이라는 중국적 개념이 우리 소설의 터밭에 심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조선조 시대에 한정되는 것이다. 소설이 ‘허구이며 그것은 삶의 갈등구조를 이야기로서 위으며 삶의 주체인 인간의 성격창조를 형상화한다’는 서구식 소설의 개념이 서사정신의 핵으로 당당하게 자리한 것이 우리 신문학에서의 사정이 되고 말았다. 김만중이 말한대로 17세기 지식 계급이 중국의 문자인 한자로 詩賦를 짓는 것과, 오늘날 우리의 작가들이 서구에서 수용된 소설의 그릇에 우리의 언어로 풍속을 담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 수용된 것에도 우리의 것을 담으려 하는 점에서는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천지귀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중국만이 아니라는 김만중의 말에서, 밖으로부터 수용된 것일지라도 그 그릇속에 진실로 자기 것을 담을 수 있다면 감동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 기장 한국적인 제재와 문체

최명희의 소설 「魂불」은, 결론부터 말한다면,



면, 외국으로부터 수용된 ‘소설’이란 문학의 갈래를 가지고 가장 한국적이고 한국인밖에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이라면 그것을 읽고 누구나 감동의 소용돌이 속에 휘감기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마력을 갖고 있다. 그 마력이 어디에서 비롯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가) 울을 넘는 음식냄새와 시골벽적한 사람 소리, 이어 뜨락을 메운 질펀한 흥취와 안방 여인네들의 정겨운 어우러짐, 그리고 사랑채 어른들의 경세담들을 모두 한마당에 만난다. 고색창연한 그 일문의 내력을 숨기고 있는 뒤꼍 대밭의 은밀스런 속삭임까지도.

(나) 소설 「魂불」은 여성적인 녀의 고희스러움과 섬세한 문체의 마력으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러면서도 대하 서사시적인 규모를 지닌 일대 거작이며 엄청난 폭이 넓은 사회소설이다. 이야기 중심, 사건중심이 아닌 소설장르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한 이 작품...

(가)는 소설가 이청준의 언급이고, (나)는 평론가 이동하의 글이다. (가)(나)의 짧은 글은 둘다 「魂불」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가)는 소설 「魂불」이 우리를 감동의 늪으로 흡입시키는 마력을 그것이 가진 소설적 제재를 통해 해명하고 있으며, (나)는 소설 「魂불」의 문체와 작가의 소설적 기량에서 그 마력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魂불」이 감동의 전율을 갖게 해주는 마력은 바로 이 둘 모두가 합해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즉 「魂불」은 그 제재를 가문의 정통성 유지를 지고의 가치로 섬기는 宗家를 중심으로 거기에 얽힌 여인들의

여인3대의 기구한 운명,

그리고 그 여인들을 정점으로

포괄되는 인물들의 사회에 대한 대응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는 「魂불」의

문체는 흔히 볼 수 있는 소설들의

그것과 많이 다르다.

참다운 서정성을 바탕으로

탐미의 극치에서 빛어낸 작품이

바로 이 소설 「魂불」이다.

한과 원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가문의 정통성 유지야말로 가장 한국적인 풍속도의 축약일 것이며, 여인들의 한과 원은 유교적 가치관의 근간을 이루는 남존여비를 통해 볼 수 있는 전통적인 한국 여성 성격창조의 가장 보편적 통로일 것이다. 「魂불」이 소설적 배경과 그 공간 그리고 등장인물들을 그곳에서 찾았다는 것은 한국인의 마음 저 깊은 바닥에 웅어리처럼 고여있는 아련한 향수를 끄집어내주게 된다. 그 향수는 보편적인 한국인 정서의 핵심이고 끈질기게 삶을 유지하려는 한국인 의지의 가닥이기도 할 것이다. 여인 3대의 기구한 운명, 그리고 그 여인들을 정점으로 포괄되는 원주 속에 놓이는 인물들의 사회에 대한 대응을 작가는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게 된다.

### “실로 소중한 모국어의 보고”

그 세밀한 추적의 하나에 작가의 문체를 들 수 있다. 그것은 기존의 소설들의 문체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의 절대경지를 향하여 구도의 자세로 걸어가 그의 문장이, 참다운 서정성을 바탕으로 탐미의 극치에서 빛어낸 소설 「魂불」은, 실로 소중한 모국어의 보고가 아닐 수 없다”

평론가 유중호의 지적이다. 탐미적이고 정감적이며 서정적인 문체는 기왕의 소설의 문체에서 볼 수 없는 덕목이다. 그러나 그것은 소설적 대상을 엄정하게 포착하여 서술하는 묘사적 문장과 얼마간 거리를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魂불」의 어느 대목에서는 다소 지루한 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연유할 것이다.

소설이 이야기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는 없다. 그렇지만 이야기가 꼭 사건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이 연쇄적인 사건의 연결고리가 아닌,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상황과 굳게 손잡고 있으면서 그 정황에서의 성격창조를 통해 이야기가 가진 ‘재미’ 이상의 흡입력을 가지게 장치한 것이 「魂불」이다. 청암부인에 대한 것이 그렇고 강모와 강실, 효원 그리고 이기채와 이기표에 대한 사항들이 모두 성격창조를 통해 당대 풍속과 연결되면서 읽는 사람을 끌어가게 된다. 사건의 연쇄적 연결고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소설적 재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최명희의 소설학이 우리 소설의 변형을 개척하는 것을 「魂불」에서 목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소설장르의 새로운 영토개척’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명희의 소설 「魂불」 1·2부는, 그러나, 아직 未完의 大器다. 지금 3부가 계속 켜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작가가 혼신의 열을 쏟아 그 끝이 언제가 될지를 확정해서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미완의 대기가 설정하고 있는 그 태두리를 가늠해 볼 때, 분명 우리 소설 문학사에 가장 한국적이며 가장 주목받는 환편이 될 것임을 의심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바깥으로부터 수용된 소설의 그릇 속에 가장 한국적이고 한국인밖에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감동적으로 표상화시켜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끝장을 덮으면서 나는 서포 김만중을 생각했고, 그다음 김홍원을 생각했다. 부벽루에 올라 대동강의 풍광에 넋을 잃고 결국 한 귀절밖에 쓸 수 없었던 그 시인을 생각했다. 비록 아직 켜어지고 있는 소설의 앞부분이지만, 그것을 읽고 ‘정말 잘 쓴 소설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나는 무엇인가. 미완의 대기라고 소설 「魂불」 1·2부를 말하면서 어떤 이론적 접근도 좋은 소설한테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길사 / A5신 / 각 280면 내외 / 각 4000원